

신성이엔지, 미세먼지 해결책 제시

클린환경 산업의 선두주자 신성이엔지가 미세먼지 및 공기산업박람회인 에어페어에 참가하여 미세먼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에어페어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10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공기 전문 전시회로서, 공기의 날 기념행사와 동시 개최된다.

산업용 공기청정기와 같은 클린룸 FFU(Fan Filter Unit)의 세계 1위 전문기업 신성이엔지가 실내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소개한다. 퓨어루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고청정 제조 현장의 클린룸과 이차전지 제조 시설인 드라이룸을 공급하며 쌓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해 개발한 천장형 조명일체 공기청정기이다.

퓨어루미는 기존의 공기청정기들과 차별하여 실내의 정중앙에 위치한 전등과 일체형으로 천장에 부착한다. 실내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냄새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천장에 위치한 덕분에 부유중인 초미세먼지까지 코안다효과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하는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벽을 따라 공기가 순환하는 코안다 효과는 빠르고 멀리 공기가 순환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위치의 제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장의 LED 전등과 일체형으로 부착하는 공기청정기를 개발한 것이다.

최근 퓨어루미는 삼시세끼와 날 녹여주오에서 활약중인 윤세아를 광고모델로 계약하고 마케팅 활동에 매진하고있다. 연기와 예능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윤세아는 LED 전등과 공기청정기가 하나로 설치되는 퓨어루미와 같은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모델이고, 윤세아는 춤을 통해 한수위 공기청정기를 소개하는 매력을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소형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 장비도 선보인다.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이며 악취를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광화학 산화성 물질로 지구 환경과 대기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성분이다. 신성이엔지의 CV-Master는 이러한 오염물질을 농축, 분해하는 일체형 시스템으로 90% 이상의 처리율과 95%이상의 분해율을 자랑한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삼한사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문제가 질게 깔리고 있다. 공기 전문기업으로 기술력을 총 집합한 퓨어루미는 가정용을 시작으로 사무실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초기 반응이 좋은 만큼 속도를 내어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